

62. 너희들의 사랑의 향기로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위로하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해.

2015.05.02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오늘밤 제가 'Jesus, Holy Jesus(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찬양노래를 들으며 찬양할때, 저는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통을 받고 계셨어요.

그 찬양노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도록 내버려둔 채, 저는 주님과의 달콤한 환영에 빠져들었고 주님의 수염 바로 아래에 저의 이마를 대었어요. 때때로 저희는 눈을 마주쳤고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찬양노래가 반복되어지면서 저는 주님의 고통이 경감되고, 주님의 머리를 둘러쌌던 그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눈에 기쁨의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에스겔에게 무슨일이 일어났었는지 말하였고 에스겔은 말하였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얼마나 고통을 겪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이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로 저에게 영감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위로하는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나는 매일 가슴아픈 일들로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하고,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있는 왕좌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너가 단지 나와 함께하기를 갈망하면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오, 너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밝히는지 너는 상상할 수도 없어.

나의 신부들아, 너희들이 이 지구에서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내가 너희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야. 나에게 대한 너희들의 부드러운 애정은 순전한 고문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들, 나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영혼들에 대해 타오르는 나의 마음을 진정시켜줘 이 극단적인 두 종류의 영혼들을 나는 매일 마주해야하고, 이 극단적인 두 종류의 영혼들이 나의 민감한 마음을 찢어.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의 집으로 내가 돌아왔을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의 하루의 고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는 그들의 품에서 나의 기쁨을 찾아. 클레어가 하는 것이 옳아. 나는 나의 신부들이 그들의 아무런 의제들 없이 나에게 와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나의 임재안에 있고, 나를 찬양하고, 내 옆에 조용히 함께 앉아있기를 갈망해. 그들의 마음의 신선한 물은 공기 중에 부드럽게 향기를 발산하는 동산으로 둘러쌓여있는 곳에 있는 노래하는 흐르는 시냇물과 같아. 그들의 찬양과 사랑스러운 생각들은 찬양의 달콤한 향기가 나고 나의 주위에서 춤을 춰.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잔잔한 물가에 함께 앉아 하루의 속타는 마음을 서로의 삶에서 씻어내. 그들은 나를 진정시키고, 나도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보답해. 그들의 얼굴은 나를 위로하고, 나의 얼굴은 그들을 위로해. 우리는 함께 사랑의 향기로 가득찬 이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서 떠다녀. 오, 나의 신부들이 그 날의 일들과 추한것들을 멀리 뒤에 남겨놓고 나의 볼을 부드럽게 비비는, 교향곡이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위로받는 곳, 이 부드러운 기쁨의 동산에 들어오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나의 신부들아, 나는 너희들에 대한 나의 헌신, 나를 향한 열망, 세상과 그 모든 유혹을 거부한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 인간의 행위들에 너무 몰두한 세상에서 너희들은 이국적인 행성의 희귀한 동산이며, 아직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야.

이것이 내가 아담과 이브와 함께 갈망하고 추구했던 곳이야. 하지만 슬프게도 모든 선의 방해자가 그들을 타락시키기위한 침투로를 발견하였어. 하지만 영원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악의 흔적들도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심지어 그들의 목숨보다도 나를 선택한 나의 승리한 창조물들이 내 앞에 서있을 거야.

나의 아들 딸들아, 주저하지말고 이런식으로 나의 임재 안에 들어와라. 나의 안식처의 장소로서 너희들의 마음을 바쳐라. 사람들의 냉담한 무관심을 내가 잊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관심의 시선을 나에게 주어라. 나의 모든 창조물들이 나에게 제공했어야 했던 그 안식처를 나에게 주어라. 나를 너희들의 마음의 정원으로 데려가 나의 상처들을 돌봐줘라.

내가 지구에서 반드시 봐야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을때까지 너희들은 나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너희들의 사랑의 힘을 절대로 알지 못할 거야. 나중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난한 과부의 정성 어린 헌금이 만든 이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의 마음의 찬양과 위로의 향기로 나의 임재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나의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것이야. 그리고 그것은 영원해. 나는 이제 너희들이 나의 세상에서 너희들의 만든 변화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너희들을 축복해.